

1. 순천 읍내의 운동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지방조직을 통해 순천군에 전달된 것은 1919년 3월 2일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독립선언서 인쇄의 실무를 책임진 인물은 천도교 출판사 보성사(普成社)의 사장 이종일(李鐘一)이었고, 이종일은 다시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 대한 살포책임을 맡은 인종익(印宗益)에게 2,000장을 교부하였다. 이 중 1,700장이 천도교 전주교구 김용원(金融員)·김진옥(金振玉)에게 전달되었다. 선언서는 전주교구실에서 전북지역으로 살포되기 시작하였는데 교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임실에는 선언서가 우선적으로 전달되었다. 즉 김진옥은 2월 28일 전달받은 선언서 중 200장을 직접 임실교구장 한영태(韓永泰)에게 전달했다.¹⁾

임실군 둔남면(屯南面) 오수리(葵樹里)는 남원군 서북쪽에 위치한 덕과면(德果面)과 인접해 있었다. 임실로 전달된 선언서 중 약 40장이 한영태의 지시를 받은 오수리 거주 천도교 전도사인 이기동(李起東)을 통해 3월 2일 새벽 4시경 덕과면 사율리(沙栗里) 거주 천도교인 이기원(李起元), 황석현(黃錫顯), 황동주(黃東周)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이를 천도교 남원교구장 유태홍(柳泰洪)에게 전달한 인물은 이기원이었으며 유태홍이 취한 행동은 즉각적인 것이었다. 그는 교인 8명을 모아 3·1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남원군과 그 인접지역에 이를 전달케 하였는데, 유태홍이 파견한 김종웅(金鐘雄)이 바로 이날 구례군을 거쳐 구례의 천도교인 윤상윤(尹相鎭)과 함께 직접 순천 천도교구에 독립선언서 약 30장을 전달하는 것이다.²⁾

순천교구의 교인 김희로(金希魯)³⁾·강형무(姜瑩武)·문경홍(文京洪)·염현두(廉鉉斗)·윤자환(尹滋煥) 등은 선언서를 받아 읽은 다음 이를 읍내와 인접지역으로 전달, 살포하기로 하였다. 즉, 윤상윤은 순천군 황전면과 구례군의 일부지역에, 김희로는 광양읍의 보통학교와 읍내 곳곳에, 윤자환은 해룡면사무소 앞과 여수경찰서 앞 게시판 및 여수군 울촌면에 각각 살포하거나 부착할 임무를 정하였다. 이때 순천읍을 맡은 인물은 강영무였다. 먼저 강영무는 순천 읍내의 군청, 면사무소, 헌병분견소 앞 게시판과 동문·서문·남문·북문의 네 대문에 독립선언서를 게시하여 선언서의 취지를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만세시위를 유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경홍·염현두는 순천지역 천도교인들과의 연락 임무를 맡았다.⁴⁾

강영무는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임무가 정해진 3월 2일 밤에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19년 3월 3일 총독·정무총감·내무부장관·육군대신·참모총장 등에게 보낸 3월 2일의 전라남도 지역 정황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순천군: 2일 밤 읍내에 독립선언서 천매(千枚)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 중이다.⁵⁾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豫審終結決定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22~23쪽.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三·一運動史(下)』 제3권, 1969, 495·502·537·591쪽.

3) 광양군지편찬위원회, 『황양군지』, 1983, 310~313쪽. 당시 광양읍 오산리에 거주하였고 3월 3일 광양군으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거주지에 있는 氷庫嶺에서 교인과 일반인 수백 명을 모아 이른바 ‘慟哭禮拜’라고 일컬어졌던 ‘憂國禮拜’를 올렸는데 이는 일반 예배 후 참석자 전원이 합장 통곡하는 것이었다.

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삼·일운동사(하)』 제3권, 1969, 591쪽.

5) 朝鮮總督府 警務局, 『三·一運動日次報告』, 『三·一運動編』1, 국학자료원 편, 289쪽(現代史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시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일제의 감시가 철저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활동과 계획이 만세시위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는다. 천도교 계통의 움직임과 별도로 3월 16일 오후 2시경, 예수교 청년회원 수백 명이 순천읍 난봉산(鸞鳳山)에 모여 만세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헌병분견대에게 해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일시 검속되었다.⁶⁾ 현재 이날 계획의 경위, 주도층, 결과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천지역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다음의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3월 19일의 상황보고 : 전라남도 순천에 불온한 소리가 있어 장교 이하 11명을 파견하였다.⁷⁾

남선(南鮮)지방 폭동이 점점 만연되는 조짐이 있어 보병 제80연대 중 대전에 1중대, 대구에 2중대를 잔치(殘置)하고 기타는 다음과 같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 전북 전주·남원·고창·진안·이리에 1중대, 전남 광주·순천·해남·송정에 1중대, 기타 필요에 따라 군대를 임시 배치한다.⁸⁾

앞의 사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제는 3월 하반기 순천의 3·1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참고로 3·1운동 직전 전라남도에 대한 헌병대·경찰관서의 배치와 헌병·경찰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듯 일제는 3·1운동 직전인 1918년 말 현재 정규군 약 2만 3,000명 외에 1만 3,380명의 헌병·경찰을 전국 각지 1,861개소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 중 전라남도에는 1,015명의 헌병·경찰이 136개소의 헌병대 혹은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있었다. 1918년 3월 12일 현재 순천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으나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곧 1개 중대가 배치되었

資料』, みすず書房, 1977);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I, 原書房, 1967, 316쪽.

6)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1운동사(하)』 제3권, 1969, 591·640~642쪽.

한편,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59, 913쪽에는 鸞鳳山이 密鳳山으로, 헌병분견대가 아니라 경찰에게 해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국학자료원 편, 『三一運動史』1, 135~136쪽; 金正明 編, 앞의 책, 1967, 501쪽. 朝鮮軍司令部가 3월 21일 육군대신에게 3월 19일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비밀 전보문이다.

8) 국학자료원 편, 위의 책, 151쪽. 조선군사령관이 3월 27일 육군대신에게 3월 25일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비밀 전보문이다.

9) 조선군사령관, 『조선독립운동방지를 위한 군대 분산 配備의 건』, 『조선독립운동』I, 김정편 편, 原書房, 1967, 354~355쪽.

3·1운동 직전 전라남도 일본헌병대의 배치와 헌병수¹⁰⁾

(1918. 12. 현재)

지역	구분	헌병대						헌병수			
		사령부	본 부	분 대	분건대	과건소	출장소	계	직 원	보조원	계
전 남		-	1	5	6	50	1	63	213	302	515
전 국		1	13	78	98	877	9	1,110	3,377	4,601	7,978

3·1운동 직전 전라남도 일본경찰관서의 배치와 경찰수¹¹⁾

(1918. 12. 현재)

지역	구분	경찰관서					경찰수			
		경무 총감부	경무부	경찰서	순사 주재소	순사 파출소	계	일본인	조선인	계
전 남		-	1	10	59	3	73	177	323	500
전 국		1	13	99	532	106	751	2,131	3,271	5,402

으며 4월 12일에는 벌교에도 소대병력이 파견되었다.¹²⁾ 순천 주변에는 진주에 대규모 병력이 새로이 배치되었으며,¹³⁾ 오산(烏山)과 여수에 헌병대 분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¹⁴⁾ 여수 주둔 수비대와 헌병대는 약 1,000명에 이르렀다. 이 헌병대들은 모두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헌병을 통괄 지휘하는 대구헌병대 산하였다.

한편 전라남도 행정당국은 3월 13일부터 도청직원을 각 군에 파견하여 제1단계로 군수·면장회의를 갖고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하게 하였다. 제2단계로는 각 군의 군수 및 군청직원 등이 중심이 되어 각 면을 순회하며 구장(區長)·유지회의를 갖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민중들의 '차중'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1단계 각 군의 순회회의는 3월 14일 해남군(海南郡)에서 시작되어 3월 19일 무안군(務安郡)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으며, 제2단계 면 순회회의와 설유공작(說諭工作)은 3월 16일 광주군(光州郡)에서 시작되어 해남군에서 끝을 맺었다.¹⁵⁾

10) 조선총독부, 「憲兵隊及職員」,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8, 476~477쪽.

11) 조선총독부, 위의 책, 474~475쪽.

12) 조선군사령관, 「軍隊分散配置豫定要圖」, 『3·1운동편』1, 국학자료원 편.

13) 조선군사령관, 「조선독립운동방지를 위한 군대 분산 배비의 건」, 『조선독립운동』I, 김정편, 原書房, 1967, 354~355쪽.

14) 조선군간무정리부, 「헌병으로 하는 치안경비」, 越智唯七, 『조선연감』, 1926, 140~142쪽.

15) 경성일보사 편, 『朝鮮年鑑』, 1939, 135~136쪽.

4월 7일 순천읍 장날 오후 1시경, 순천군 상사면 용암리에 사는 박항래(朴恒來 : 당시 58세)가 지금의 순천 시내 옥천루(玉川樓) 부근에 있었던 남문 문루인 연자루(燕子樓) 위에 올라가 장날 모여든 군중을 향해 “현재 경향 각지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순천에도 그와 같이 만세를 외치자.”고 연설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유도하였다.

박항래는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인 관택원야(官澤員也)에게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그해 11월 3일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박항래의 개인적 신상과 거의(擧義)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판결문을¹⁶⁾ 요약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재산이 없어 생활이 매우 곤궁하였지만 스스로 양반이라 칭하며 항상 각처의 양반 유생을 방문하여 생활비의 원조를 받고 있는 자이다. 그 성품이 매우 완명(頑冥)하며 시국의 추이를 살피지 못하고 일한합방 이래 줄곧 총독정치에 불만을 품고 언제나 일본의 기반(羈絆)을 벗어날 시기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던 차에 현재 유럽의 강화회의에서 조선독립이 제의되었다는 소식에 따라 경향(京鄕)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독립운동이 치열(熾烈)한데 이것은 나와 소견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진하여 다수 민중에게 조선독립의 사상을 고취하여 그 협력을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왔다. 피고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7일 오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1운동사(하)』 제3권, 1969, 631~632쪽.

후 1시경,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 읍내 시장에서 백지 1장을 구입하고 그날이 장날이어서 다수의 조선인이 집합한 것을 기회로 읍내 남문 누상(樓上)에 올라 군중들에게, 목하(目下) 경성 기타 여러 곳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절규하고 있으니 이곳 순천에서도 같이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연설하고, 앞서 기록한 백지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라고 여러 번 고창하고 불온(不穩)의 말을 농(弄)하였기 때문에 그곳 부근에 있던 수백의 군중이 완전히 문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문 아래로 몰려들었다.

피고는 달려온 헌병에게 체포, 연행되면서도 극력 저항, 오히려 대한독립만세를 연호(連呼)하여 지방민에게 총독정치에 대한 반항심을 선동·과급해 치안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박항래 만세시위는 단독거사로 끝났다. 즉, 군중들의 만세시위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것은 박항래가 만세를 선창하는 데도 누하(樓下)에서 호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⁷⁾ 일제의 경찰로서도 이날의 정세를, 약간의 소요가 있었으나 기타의 폭동행위나 군대의 행동, 사상자는 전혀 없었으며 헌병에게 해산되었던 것으로 기록하였다.¹⁸⁾

17) 1919년 4월 26일, 「大正8년 刑 제456호」.

18) 李龍洛, 『一運動實錄』, 3·1동지회, 1969, 556쪽.